

부모님께서 궁금해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Q & A

Q.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무엇일까요?

- A. 신체발달의 정도는 신체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성격 특성과 정서·행동발달의 정도를 평가하고 성장 과정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인지·정서·사회성 발달과정의 어려움을 조기에 평가하여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별검사**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책으로 2007년부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Q.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선별검사라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 A.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확정하는 진단검사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군을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한 평가가 필수이지만 모든 학생에게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간단한 자가 평가를 통해 어려움을 지닐 가능성이 높은 군을 선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 또는 학생의 자가 평가에 의한 검사의 특성상 **잘못된 입력**으로 인해 검사 결과의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담과 심층평가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Q. 어떤 이유로 이런 검사를 하나요?

- A.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고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성장기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 정서·행동 측면에서의 어려움에 적절히 개입한다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며 학교 부적응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Q.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설문지에 답변한 것으로 관심군을 결정하나요?

- A.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 양육자가 아이의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답변한 결과를 토대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주 양육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가 검사에 참여하여 응답하시면 되고 주 양육자가 (외)조부모인 경우 부모님의 (외)조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모가 응답하시면 됩니다. 이 검사로 아이의 정서·행동 발달 경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정서·행동 발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의 마음 건강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Q. 설문지 문항 몇 개로 어떻게 아이의 심리상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나요?

- A.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성격 특성과 해당 연령대에 흔히 나타나는 정서·행동 상의 어려움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선별검사**입니다. 이 검사로 아이의 심리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며, 아이의 마음 상태에 대해 보다 심층적,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 아이가 관심군 판정을 받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 A. 관심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학생의 해당 연령, 성별에 비해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의 총점이 평균보다 일정 이상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는 학생의 심리 문제를 모두 파악하거나 특정 정신과적 질병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집중력의 저하나 불안, 우울, 학습 부진, 사회성 부진, 짜증 등 부정적 기분, 반항적 태도, 스트레스, 자기통제 부족 등의 경향성을 도래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추가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아이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답 당	학생 정서·행동발달 지원 내용
심층평가	전문기관	■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상담 및 검사
추후 관리 (개별상담)	학교 및 가정, 전문기관	■ 관심군: 학교 내 지속관리(상담 등) 및 전문기관에 연계·치료 지원